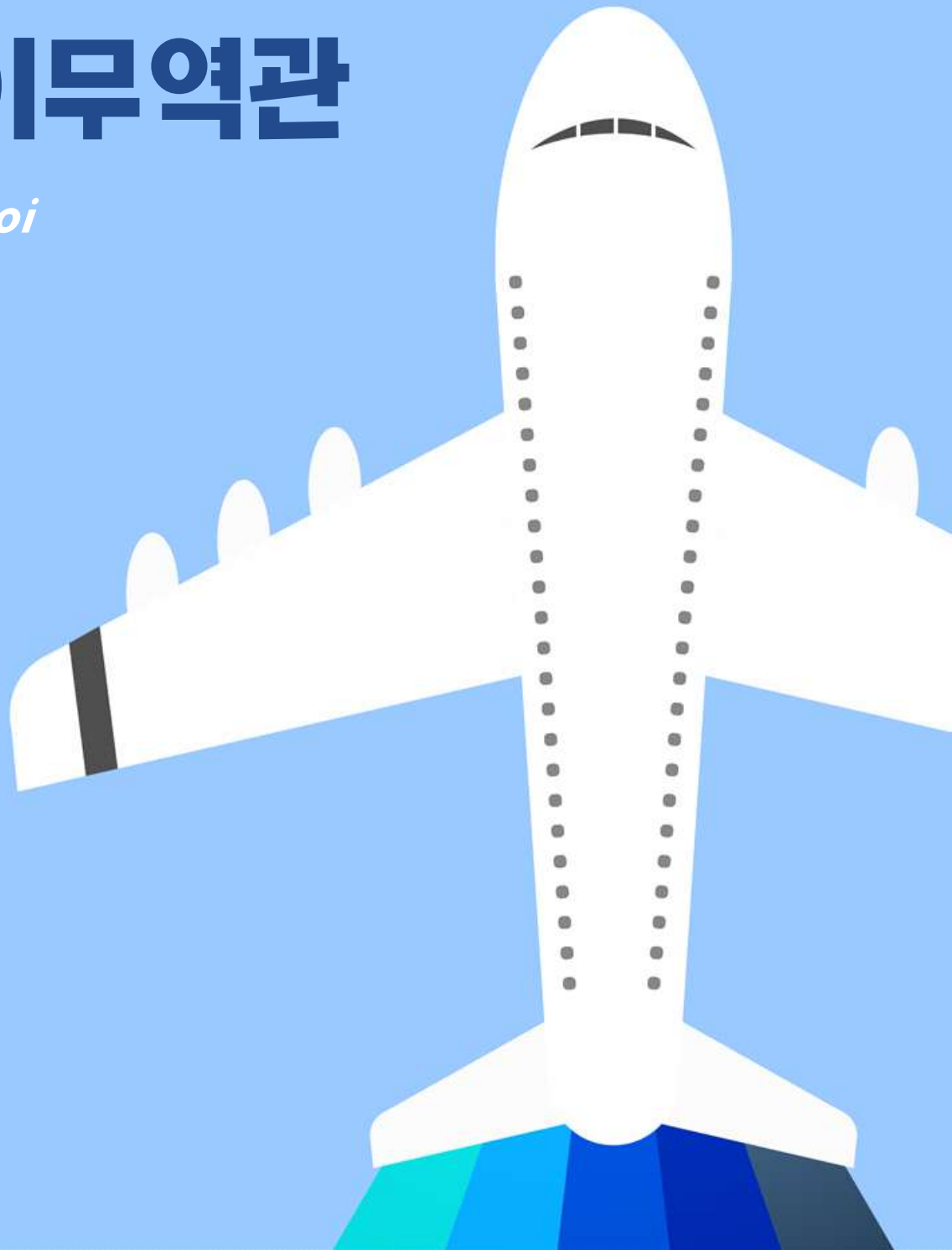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KOTRA Hanoi



목 차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1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3
III.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7
IV. 베트남 경제 전망	27
V. 체류시 참고사항	28
VI. 주요연락처	31

I. 베트남 및 하노이 개황

1. 베트남 개황

- 면 적 : 331,317㎢ (한반도의 약 1.5배, '21년 베트남 통계청)
- 인 구 : 98,510,000명 ('21년, 베트남 통계청)
- G D P : 약 2,712억 달러 ('20년, 베트남 통계청) *2021년 확정 수치 미발표
- 1인당 GDP : 약 2,779달러 ('20년, 베트남 통계청) *2021년 확정 수치 미발표
- 경제성장률 : 2.58% ('21년, 베트남 통계청)
- 물가상승률 : 1.81% ('21년, 베트남 통계청)
- 환 율 : 1달러당 VND 23,140 ('21년 평균, 베트남 중앙은행)
- 시 차 : 한국보다 2시간 늦음
- 민 족 : 비엣족(긴족, 인구의 약 85.7%), 타이족,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종 교 : 무교(8,300만 명), 불교(460만 명), 가톨릭(586만 명), 개신교(96만 명) 등 ('19년 베트남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정치체제 : 사회주의 공화국(공산당 일당)
- 주요 지도자
 - 당 서기장 : 응웬 푸 쯡(Nguyen Phu Trong)
 - 국가주석 : 응웬 쉐언 푸(Nguyen Xuan Phuc)
 - 총리 : 팜 밍 쩡(Pham Minh Chinh)
 - 국회의장 :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2. 하노이 개황

□ 기본 개황

- 면 적 : 3,358.6km²
- 인 구 : 825만명('20년)
 - 호치민 923만 명, 하이퐁 205만 명, 쩌터 124만 명, 다낭 117만 명
- 평균기온 : 연평균 25.3°C('20년)
- 평균습도 : 연평균 75%('20년)



자료: WIKIPEDIA OPEN ENCYCLOPEDIA

□ 지명유래 및 역사

- 중국 지배 시기에는 행정중심지로 다이라(Dai La, 大羅)성으로 불렸음
- 1010년 리(Ly, 李)왕조의 창시자인 리타이또(Ly Thai To, 李太祖) 왕이 호아르(Hoa Lu)에서 하노이로 수도를 옮김(당시 이름은 Thang Long, 昇龍)
- 1397년 쩌(Tran, 陳)왕조 말기 왕실의 외척이며 권신이었던 호꾸리(Ho Quy Ly)가 타잉호아(Thanh Hoa)에 새 수도를 건설하면서, 타잉호아를 떠이도(Tay Do, 西都)라 칭하고 탕롱을 동도(Dong Do, 東都)라 칭함
- 1428년 후기 레(Le, 黎) 왕조를 수립한 레타이또(Le Thai To, 黎太祖)가 고향인 타잉호아 람썬(Lam Son)을 람깁(Lam Kinh, 藍京)이라 하고 탕롱을 동깁(Dong Kinh, 東京)이라 개칭
 - 17세기 이래 유럽인들은 동깁을 톤깁(Tonkin)으로 표기
- 19세기 초 응웬(Nguyen, 阮) 왕조는 수도를 중부도시 후에(Hue)로 옮기고, 탕롱이라는 지명을 '하노이(Ha Noi, 河內)'로 개칭(Red River와 To Lich River의 사이)
- 1945년 독립 후 하노이를 다시 수도로 지정
- 1954~197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도(북베트남)
- 1976~현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도
 -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이름 변경

II. 베트남 경제 및 무역-투자 동향

1. 베트남 경제동향

□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단위	2018	2019	2020	2021
GDP	억 USD	2,449	2,619	2,712	2,891 ^e
1인당 GDP	USD	2,551	2,740	2,779	-
실질경제성장률	%	7.08	7.02	2.91	2.58
물가상승률(CPI)	%	3.54	3.6	3.23	1.81
실업률	%	2.21	2.21	2.26	3.22
수출	억 USD	2,435	2,643	2,827	3,363
수입	억 USD	2,367	2,534	2,627	3,322

주: 2021년 GDP는 EIU의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 관세총국, 기획투자부, EIU

□ 2021년 경제 실적

- (개요) 2분기 시작된 코로나19 변이 확산 및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4분기 빠른 경제 정상화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 2.6%^e 달성
 - 분기별 성장률 : (1Q) 4.72% → (2Q) 6.73% → (3Q) △6.02% → (4Q) 5.22%
 - '20년 아세안-5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9%)을 기록한 데 이어 '21년에도 2%대 성장 지속
- *('20년) 베트남(2.9%), 인도네시아(△2.1%), 말레이시아(△5.6%), 태국(△6.1%), 필리핀(△9.6%)
- (무역) 수출·수입 전년比 각 19.0%, 26.5% 크게 성장하며 교역액이 22.6%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6,685억 달러 기록,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달성
- (투자) 인바운드 FDI는 약 3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상승
 - 제조업(181억 달러), 발전·용수업(57억 달러) 합계가 전체 투자의 76.5% 차지
- (산업) GDP의 약 38%를 차지하는 산업 및 건설 부문이 성장 견인

<'21년 베트남 부문별 GDP 내 비중 및 성장 기여도(%)>

구분	산업 및 건설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GDP 비중 / 성장 기여도	37.86 / 63.80	12.36 / 13.97	40.95 / 22.23

자료: 베트남 통계청

-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CPI 1.8%로 안정세 유지('16년 이후 최저)

□ 2022년 1분기 경제 동향

- **(개요)** 위드코로나 정책 바탕으로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생산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1분기 GDP 성장률 5.03% 기록
 - 1분기 성장률 추이 : ('18년) 7.45% → ('19년) 6.85% → ('20년) 4.72% → ('21년) 5.03%
- **(생산)** 수요 개선으로 생산량과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2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4.3을 기록하였으나, 러-우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 잔재
- **(소비)** 1분기 소비지출 4.28% 상승, 2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개선, 153억 달러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내수 회복이 기대되나 실질소득 감소가 회복세 제한
- **(투자)** 1~2월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총 183건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
 - 주요 투자 국가: ①싱가포르(17억 달러), ②한국(14억 달러), ③중국(5억 달러) 順
 - 주요 투자 분야: ①가공 및 제조산업 ②부동산업 ③과학기술 및 전문분야 順
- **(무역)** 1분기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 12.9%, 15.9% 증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기반으로 FDI 기업을 필두로 한 가공제품 중심의 수출 증가 전망
 - '21년 말 기준, 베트남은 17개의 FTA에 대해 비준 완료 또는 협상 진행 중

2. 베트남의 대외 교역

□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 지난 5개년 개발계획 기간(2016-2020) 동안 베트남의 대외 교역액은 연평균 11.6%(수출액 12.5%, 수입액 10.7%)의 속도로 증가
- 2022년 1분기 교역액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1,767억 4,819만 달러 달성
 - 수출액 891억 385만 달러, 수입액 876억 4,43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 13.4%, 15.2% 증가, 무역수지는 14억 5,952만 달러 흑자를 기록
 - 1분기 베트남의 수출 및 수입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73.4%(653.6억 달러), 65.8%(576.9억 달러)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교역 순위는 1위 중국(409억 달러), 2위 미국(294억 달러), 3위 한국(229억 달러) 순

<베트남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백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수출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264,267 (8.4)	282,628 (6.9)	336,311 (19.0)	89,104 (13.4)
수입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253,393 (7.0)	262,691 (3.7)	332,235 (26.5)	87,644 (15.2)
무역수지	1,777	2,915	6,795	11,118	19,938	4,076	1,460
교역규모	351,385 (7.3)	425,123 (21.0)	480,171 (12.9)	517,660 (7.8)	545,319 (5.3)	668,546 (22.6)	176,748 (14.6)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2년 1분기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 현황>

(단위 : US\$ 십억, %)

순위	국가명	수출액(비중)
1	미국	26.0(29.1)
2	중국	13.4(15.1)
3	한국	6.1(6.9)
4	일본	5.4(6.0)
5	홍콩	2.7(3.0)
6	네덜란드	2.3(2.5)
7	독일	2.1(2.4)
8	인도	2.0(2.3)
9	태국	1.7(1.9)
10	영국	1.4(1.6)
기 타		26.0(29.2)
합 계		89.1(100.0)

순위	국가명	수입액(비중)
1	중국	27.4(31.3)
2	한국	16.8(19.1)
3	대만	6.1(6.9)
4	일본	5.8(6.6)
5	미국	3.4(3.9)
6	태국	3.2(3.7)
7	말레이시아	2.5(2.8)
8	호주	2.1(2.4)
9	인도	2.1(2.4)
10	인도네시아	1.8(2.1)
기 타		16.3(18.7)
합 계		87.6(10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22년 1분기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US\$백만, %)

순위	품목명	수출액(비중)
1	전화기 및 그 부분품	14,875(16.7)
2	전자제품 및 부분품	13,240(14.9)
3	기계장비 및 기타부속품	9,952(11.2)
4	섬유·의류제품	8,678(9.7)
5	신발류	5,294(5.9)
6	목재 및 목제품	3,979(4.5)
7	수송수단 및 그 부속품	2,899(3.3)
8	수산물	2,524(2.8)
9	철강재	2,300(2.6)
10	원사류	1,448(1.6)
기 타		23,915(26.8)
합 계		89,104

순위	품목명	수입액(비중)
1	전자제품 및 부분품	21,728(24.8)
2	기계장비 및 기타부속품	10,529(12.0)
3	전화기 및 부분품	5,537(6.3)
4	직물	3,598(4.1)
5	플라스틱 원료	3,322(3.8)
6	철강재	3,144(3.6)
7	원유	2,446(2.8)
8	화학물질	2,342(2.7)
9	비금속류	2,319(2.6)
10	화학제품	2,252(2.6)
기 타		30,425(34.7)
합 계		87,644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2021년 수출입 동향

- '21년 수출수입 전년比 각 19.0%, 26.5% 크게 성장하며 교역액이 22.6%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6,685억 달러 기록, 무역수지 6년 연속 흑자 달성
- (수출) 3,36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0% (536.8억 달러) 증가
 - 베트남 3대 수출품목(휴대폰, 전자·컴퓨터, 기계공구 및 부품 등) 모두 두 자릿수 성장, 기계공구(부품)은 전년에 이어 40%대 증가율 지속

<'21년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US\$ 억, %)>

구분	휴대폰 및 부품	전자컴퓨터 및 부품	기계공구 및 부품	섬유·의류	신발
수출액	575	508	383	327	177
증감률	12.4	14.0	41.0	9.9	5.7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수입) 3,3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5% (695.4억 달러) 증가
 - 무역구조상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품 등 중간재 수입규모가 3,107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수입액의 93.5% 차지
 - 4분기 생산·내수 정상화 및 '22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반영 평가

<'21년 주요 품목별 수입 증감률(US\$ 억, %)>

구분	전자컴퓨터 및 부품	기계공구 및 부품	휴대폰 및 부품	섬유	플라스틱
수입액	754	462	214	143	116
증감률	17.9	24.3	28.8	20.6	39.2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주요국별 교역 동향
 -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1,659억 달러), 미국(1,116억 달러), 한국(781억 달러) 순으로,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중국(對美 수출 전년 대비 +24.9%, 對中 수입 +30.5%)

- '21년 베트남 주요 수출국(억 달러) : 1위 美 (963) → 2위 中(560) → 3위 韓(219) → 4위 日(201)
- '21년 베트남 주요 수입국(억 달러) : 1위 中 (1099) → 2위 韓(562) → 3위 日(226) → 4위 대만(208)

- ① (對중국) 소재·부품 최대 수입시장으로 전년 대비 수출 16.7%, 수입 33.1% 모두 크게 증가, 베트남 1위 교역국으로서의 위치 공고화

- '21년 기계공구(부품)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46.4% 급증(249.2억 달러)
- '21년 휴대폰(부품) 수입에서 한국(107.3억 달러)에 이어 2위(92.4억 달러) 차지

② (對미국)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28.6% 차지, '21년 교역액 1,1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기록과 동시에 무역흑자 확대

- 베트남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억 달러) : ('19년) 470 → ('20년) 634 → ('21년) 810
- 美 정부 베트남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21.4.)에 따라 베트남 對美 수출 및 교역 확대

③ (對한국) 지난 3년 양국 간 교역이 다소 정체되었으나, '21년에는 수출 13.8%, 수입 19.7% 모두 크게 성장하며 교역액 781억 달러 달성

- 對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치 기록(342억 달러, 베 관세총국)

- 주요 수출품 전년비 증감률(%) : 휴대폰(+12.0), 의류(+7.9), 컴퓨터(+30.6), 신변잡화(△4.4)
- 주요 수입품 전년비 증감률(%) : 반도체(+22.0), 디스플레이(+26.1), 휴대폰(△4.2), 합성수지(+49.5)

자료 : KITA 무역통계, MTI 3자리수 기준

④ (對ASEAN) 역내 교역 활성화에 따라 EU를 제치고 베트남 교역 순위 4위 탈환

- '21년 對태국 자동차 수입 80,903대, 15.1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각 53.6%, 40.7% 급증

<'21년 베트남 주요국별 수출입실적>

(단위: US\$ 십억, %)

연번	국 가	수 출			수 입			교역액	
		금액	증감	비중	금액	증감	비중	금액	비중
1	중 국	56.01	14.5	16.7	109.87	30.5	33.1	165.89	24.8
2	미 국	96.29	24.9	28.6	15.27	11.4	4.6	111.56	16.7
3	한 국	21.95	13.8	6.5	56.16	19.7	16.9	78.10	11.7
4	아세안	28.77	24.8	8.6	41.13	35.0	12.4	69.90	10.5
5	EU(27)	40.06	14.1	11.9	16.89	15.3	5.1	56.95	8.5
6	일 본	20.13	5.3	6.0	22.65	11.3	6.8	42.78	6.4
...		...							
합 계		336.31	19.0	100.0	332.23	26.5	100	668.55	100.0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 한-베트남 교역 동향

- 2022년 1분기 기준, 베트남은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3위 교역국으로 등극하였으며, 교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한 약 236억 6,341만 달러 기록
 -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166억 4,8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고, 수입액은 70억 1,511억 달러로 20.2% 증가
 - 대베트남 수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흑자 규모는 96억 달러에 달했으며, 베트남은 '22년 1분기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으로 집계됨
 - * '21년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는 327억 달러로, 베트남은 홍콩(353억 달러)에 이은 2위 무역흑자 대상국

* 한국의 대외 교역에서 베트남의 위상 변화

- 수출 : ('16)4위 → ('17)3위 → ('18)3위 → ('19)3위 → ('20)3위 → ('21)3위 → ('22.3)3위
- 수입 : ('16)8위 → ('17)8위 → ('18)7위 → ('19)5위 → ('20)5위 → ('21)6위 → ('22.3)6위
- 교역 : ('16)4위 → ('17)4위 → ('18)4위 → ('19)4위 → ('20)4위 → ('21)4위 → ('22.3)3위
- * '22년 3월 기준,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3위 교역대상국(수출 3위, 수입 2위)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US\$백만,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수출 [한→베]	32,630 (17.5)	47,754 (46.3)	48,622 (1.8)	48,178 (△0.9)	48,551 (0.7)	56,729 (16.9)	16,648 (30.5)
수입 [베→한]	12,495 (27.4)	16,177 (29.5)	19,643 (21.4)	21,072 (7.3)	20,579 (△2.3)	23,966 (16.5)	7,015 (20.2)
무역수지	20,135	31,577	28,979	27,106	18,629	32,763	9,633
교역규모	45,125 (20.1)	63,931 (41.7)	68,265 (6.8)	69,250 (1.4)	69,090 (△0.2)	80,695 (16.8)	23,663 (27.3)

주: 괄호 안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품목별 한-베트남 수출입 현황

<'22년 1분기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반도체	4,268,731	42.4	25.6
2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374,511	40.0	20.3
3	석유제품	1,168,087	385.7	7.0
4	합성수지	823,462	57.0	4.9
5	무선통신기기	690,769	-13.7	4.2
6	기구부품	608,013	8.9	3.7
7	철강판	308,616	7.7	1.9
8	플라스틱 제품	279,015	5.6	1.7
9	자동차부품	257,305	21.0	1.5
10	계측제어분석기	232,087	-6.3	1.4
	기타	4,637,704	-	27.9
	합 계	16,648,300	30.5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22년 1분기 한국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품목>

(단위: US\$ 천, %)

순위	품목명	수입액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비중
1	무선통신기기	1,780,980	30.5	25.4
2	의류	898,123	6.2	12.8
3	컴퓨터	685,348	13.0	9.8
4	신변잡화	300,690	-10.2	4.3
5	목재류	221,420	18.9	3.2
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15,620	97.5	3.1
7	산업용 전기기기	210,309	22.4	3.0
8	반도체	192,126	43.2	2.7
9	기구부품	162,943	20.0	2.3
10	영상기기	152,837	14.4	2.2
	기타	2,194,711	-	31.3
	합 계	7,015,107	20.2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MTI 3단위 기준)

3. 베트남 외국인투자 유치 동향

□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총괄

- 2022년 1분기, 베트남 FDI 총액 89.0억 달러 전년 동기대비 11.6% 감소
 - 신규+증액 투자프로젝트는 전 년 동기 대비 투자액 22.0% 감소, 투자 건수는 39.2% 증가
 - 전체 FDI 투자 중 제조업(53.0억 달러), 부동산경영업(26.9억 달러) 투자 합계가 전체 투자의 약 90% 차지. 기타 과학전문 기술업(2.3%), 가스, 용수, 전기생산업(2.2%) 순
 - 베트남은 3월 중순경 해외 입국을 전면 재개하였으나 라-우 전쟁 및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투자 심리는 다소 위축된 것으로 판단

<전년 대비 외국인 투자 변동현황>

(단위: US\$백만, 건)

기간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21년 1분기	234	7,222.7	161	2,102.6	731	745.6	10,070.9
2022년 1분기	322	3,212.9	228	4,063.3	734	1,631.1	8,907.4
증감률(%)	37.6%	-55.5%	41.6%	93.3%	0.4%	118.8%	-11.6%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증감률은 '21년 1Q 대비 '22년 1Q 기준

<연도별 외국인 총투자액>

(단위: US\$백만, 건)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투자 금액	37,100.6	35,465.5	38,951.7	28,530.1	31,153.3	8,907.4	
증감율(전년대비)		37.9%	4.4%	9.8%	-24.9%	9.2%	-11.6%
투자 건수	9,000	10,711	16,227	9,804	6,520	1,284	
증감율(전년대비)		-8.4%	19.0%	51.4%	-35.0%	-33.5%	39.2%

주: 연간 총투자자는 (신규투자+증액투자+주식/지분 투자 포함)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증감률은 '21년 1Q 대비 '22년 1Q 기준

- 2022년 1분기 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투자가 전체 투자의 약 60% 비율로 증가하는 등 전년 동기 제조업 투자(38.9%) 비율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듯
- '21년은 가스, 용수, 전기생산업 투자가 전체 FDI의 49.6%를 차지하며 외국인 투자를 선도, '22년 1분기에는 제조업(59.5%) 및 부동산 경영업(30.3%) 투자가 증가한 반면, 기타 분야 투자는 2% 이하로 큰 격차
- 제조업 분야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1분기에 비해 외국인 투자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 (신규 프로젝트 수는 감소하였으나 투자금액은 증가)
- *'22년 1분기 기타분야 투자: 전문과학기술업(2.3%), 가스, 용수, 전기생산업(2.2%), 도소매 수리업(1.5%), 건설업(1.3%), 물류운송업(1.2%) 순

<최근 3년 1분기 기준 외국인 제조업 투자변동 현황>

(단위: US\$백만, 건)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및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20년 1분기	225	1,184.1	151	841.5	624	699.1	2,724.6
2021년 1분기	124	1,681.9	119	1,919.6	180	317.4	3,918.9
2022년 1분기	84	2,190.4	150	2,809.3	107	300.6	5,300.3
'20년 1Q대비 '22년 1Q 증감률(%)	-62.7%	85.0%	-0.7%	233.8%	-82.9%	-57.0%	94.5%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증감률은 '20년 1Q 대비 '22년 1Q 기준

<외국인 투자 연도별, 분야별 투자 비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Q
제조업	46.8%	64.7%	47.6%	58.2%	59.5%
부동산 경영업	18.7%	10.1%	14.6%	8.5%	30.3%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0.4%	6.8%	5.7%	4.5%	1.5%
전력, 가스, 용수 생산 및 판매업	4.6%	2.6%	18.0%	18.3%	2.2%
호텔&요식업	1.6%	1.2%	1.1%	0.5%	0.2%
건설업	3.3%	2.5%	1.9%	1.5%	1.3%
물류, 운송업	1.1%	0.9%	2.1%	2.5%	1.2%
전문, 과학기술 활동	6.1%	4.1%	4.7%	3.3%	2.3%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투자금액 기준

- 2022년 1분기, 전반적인 투자침체 분위기에서 덴마크 신규 투자 주목
 - 2022년 1분기 국가별 베트남 투자는 싱가포르(1위), 한국(2위), 덴마크(3위), 중국(4위), 네덜란드(5위), 일본(6위) 순
 - 세계적인 완구류 생산기업인 'LEGO'는 남부 빈즈엉성에 13억 달러 규모의 제조공장 투자 진행('22.3월), 이외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프로젝트로는 싱가포르 투자(Louvre사, 의류섬유업, 2.1억달러 / Coca Cola, 음료 제조업, 1.3억 달러) 및 중국 투자(BW BAU BANG, 부동산 개발업, 2.3억 달러) 등 총 4개 프로젝트임
- 2022년 1분기 총 누계기준, 주요 3국 (한국, 싱가포르, 일본) 투자 전체 FDI의 49.8% 차지
 - 2022년 1분기 말 누계기준, 베트남 총 FDI 유치액은 4,228억 달러이며 투자국 1위는 한국으로 외국인 투자 총액의 18.6% 차지. 싱가포르는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누계투자 2위에 등극하였으며 다음은 일본(15.9%), 대만(8.5%), 홍콩(6.7%) 순

<對 베트남 국가별 투자 누적액 상위 8개국의 최근 5년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순위	국가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3분기	'88~'22.3월 누계
1	한국	총투자	7,212.0 (2위)	8,344.4 (1위)	3,949.1 (2위)	4,953.2 (2위)	1,606.8 (2위)	78,565.2
		그린필드투자 (신규+증액)	5,928.5 (2위)	5,647.3 (1위)	2,945.5 (2위)	4,361 (2위)	1,450.1 (2위)	
2	싱가포르	총투자	5,071.0 (3위)	4,421.2 (3위)	8,994.1 (1위)	10,711.9 (1위)	2,289.4 (1위)	67,564.3
		그린필드투자	3,269.8 (3위)	1,820.3 (5위)	6,828.4 (1위)	7,343.2 (1위)	1,799.9 (1위)	
3	일본	총투자	8,598.9 (1위)	4,169.2 (4위)	2,367.9 (4위)	3,897.5 (3위)	592.4	64,410.6
		그린필드투자	7,989.3 (1위)	2,922.5 (4위)	1,218.9 (7위)	3,650.0 (3위)	541.2	
4	대만	총투자	1,074.1	1,883.1	2,058.4	1,251.9	323.7	35,857.4
		그린필드투자	679.5	1,167.7	1,706.5	1,090.2	298.7	
5	홍콩	총투자	3,231.6	8,178.3 (2위)	1,995.7	2,315.7	581.7	28,553.9
		그린필드투자	1,936.9	3,715.2 (2위)	1,737.3 (4위)	2,142.3	571.2	
6	버진 아일랜드	총투자	1,866.2	1,406.2	902.9	569.5	55.6	22,099.0
		그린필드투자	534.6	821.7	517.3	416.8	41.4	
7	중국	총투자	2,464.8	4,115.2	2,459.4 (3위)	2,921.7	893.9	21,964.2
		그린필드투자	1,662.5	3,047.7 (3위)	2,069.6 (3위)	2,711.9	861.6	
8	네덜란드	총투자	387.0	827.8	896.5	1,122.3	627.2	13,559.0
		그린필드투자	262.7	653.3	451.7	305.9	18.8	

주. 그린필드 투자 : 투자자가 직접 시장에 자금을 들여 투자하고 운영하는 형태(신규+증액/ M&A 및 지분투자 제외)

자료: 베트남 투자청, 순서는 '88년~'22년 1분기 누적 투자액순(3.20일 기준), **누적투자액은 그린필드 투자만 집계**

<2022년 1분기 주요 국가별 對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건)

순번	국가명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1	싱가포르	40	626.6	18	1,173.4	80	489.4	2,289.4
2	한국	58	83.4	79	1,366.7	277	156.7	1,606.8
3	덴마크	2	1,319.9	-	-	1	0.0	1,319.9
4	중국	48	379.5	25	482.1	54	32.2	893.9
5	네덜란드	3	0.1	1	18.7	4	608.4	627.2
6	일본	33	166.3	31	374.9	44	51.2	592.4
7	홍콩	21	191.7	22	379.8	10	10.2	581.7
8	대만	18	219.9	12	78.8	37	25.0	323.7
9	태국	8	16.1	2	1.3	9	130.2	147.6
10	미국	18	97.2	6	21.6	42	18.8	137.6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기준

□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 총괄

- 2022년 1분기,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총투자액 및 그린필드 투자(신규+증액) 기준 싱가포르 다음 2위
 - 2022년 1분기, 한국의 투자는 총 414개 프로젝트에 16억 달러 투자하여 전년 동기 대비 약 36.5% 증가. 그러나 신규 프로젝트 수는 58개, 8.3천만 달러에 불과, 반면 증액 투자는 79개 프로젝트에 13.7억 달러 투자
 - *삼성전기 프로젝트에 약 9.2억 달러(2.15일), 푸토성 JNTC 전자부품 공장에 1.6억 달러(1.7일)이 이루어짐
 - 동 기간 대 베트남 한국 투자는 금액 기준 제조업 분야에 약 86.2%가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전문과학기술업(4.1%), 부동산 경영업(3.0%),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2.6%), 정보통신업(2.5%) 순
 - 전년 대비 제조가공업 분야(31.2%), 전문과학기술업(429.9%), 도소매 및 수리서비스업(137.4%), 정보통신업 분야(614.0%)는 큰 폭으로 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한국 투자가 상승하는 추세
 - 2022년 1분기, 한국의 투자는 증액 투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아직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소요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해외 입국이 자유화되는 2분기에 본격적인 투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

<최근 5년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건)

연도	신규프로젝트		증액투자 프로젝트		M&A, 주식매입		총투자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프로젝트수	투자금액	
2018년	1,043	3,657.5	403	2,270.9	1,899	1,283.5	7,212.0
2019년	1,137	3,668.7	457	1,580.2	2,959	2,667.9	7,917.0
2020년	609	1,205.8	354	1,740.1	1,823	1,003.1	3,949.1
2021년	361	1,198.9	280	3,162.8	1,301	591.4	4,953.1
2022년 1분기	58	83.4	79	1,366.7	277	156.7	1,606.8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기준

- 2022년 1분기 누계기준, 한국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이 이끌어
 - 누계기준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72.4%) 다음으로 부동산 경영업(12.5%), 건설업(3.6%), 가스, 용수, 전기 생산업(3.5%),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1.9%), 물류운송업(1.3%) 순

<1988년 ~ 2022년 3월 누계, 한국의 분야별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건)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금액 (백만USD)	산업비중
제조 가공업	4,563	56,915.1	72.4%
부동산 경영업	222	9,857.4	12.5%
건설업	919	2,805.1	3.6%
가스, 용수, 전기 생산업	26	2,749.9	3.5%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1,406	1,493.1	1.4%
물류운송업	183	1,058.1	1.3%
호텔요식업	376	935.4	1.2%
기타	1,570	2,754.1	3.5%
총계	9,265	78,568.2	100%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2022.3.20. 기준

<2022년 1분기 한국의 주요 산업별 투자 현황>

(단위: US\$백만, 건)

분야	총투자액 (백만USD)	전년동기대비 투자 증감률	투자비율	(신규+증자)	(M&A, 주식매입)
				투자금액 (백만USD)	투자금액 (백만USD)
제조가공업	1,384.6	31.2%	86.2%	1,349.6	35.0
전문과학기술업	65.6	429.9%	4.1%	1.7	63.9
부동산경영업	48.3	-25.5%	3.0%	41.5	6.8
도소매 유통 및 수리서비스업	41.3	137.4%	2.6%	11.3	30.0
정보통신업	40.6	614.0%	2.5%	37.4	3.3
물류, 운송업	7.7	2,600.0%	0.5%	4.8	2.9
건설업	6.5	2.5%	0.4%	0.2	6.3
호텔, 요식업	6.2	217.1%	0.4%	0.9	5.3
기타	6.0	-	0.3%	2.9	3.1
총액	1,606.8	36.5%	100%	1,450.1	156.7

자료: 베트남 투자청, 무역관 집계, 2022.3.20. 기준

○ 지역별 한국 투자, 북부지역 투자가 다수 차지

- 2022년 1분기 누계기준, 한국기업의 최대 진출지역은 삼성전자 1공장이 위치한 박닌성으로, 전체 투자의 13.9%(109.0억 달러/958개 프로젝트)를 차지
- LG 전자 단지가 있는 하이퐁이 12.3%(96.8억 달러/ 187개 프로젝트)로 두 번째 많은 투자 진출지역, 다음은 동나이 9.9%(77.6억 달러/492개 프로젝트), 하노이 9.8%(77.1억 달러, 2,366개 프로젝트), 타이응우웬 8.3%(65.2억 달러/130개 프로젝트), 호치민 6.8%(53.1억 달러/1,940개 프로젝트) 순
- 누계 투자금액 기준 지역별 투자는 북부 59.4%, 남부 35.2%, 중부 및 기타 5.4% 순

<2021~2022.1분기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프로젝트(상위 20개 사)>

순번	프로젝트명	분야	투자금액 (US백만)	투자시점	투자지역
1	LG DISPLAY (증액투자)	디스플레이	1,400	'21.8월	하이퐁시
2	삼성전기 (증액투자)	전자부품	920	'22.2월	타이응웬성
3	LG DISPLAY (증액투자)	디스플레이	750	'21.2월	하이퐁시
4	HANA 마이크론(증액투자)	전자부품	291	'21.12월	박장성
5	JNTC (증액투자)	전자부품	163	'22.1월	푸토성
6	SMC HUE(스마트시티, LH공사)	공단, 신도시 개발	150	'21.4월	트어티엔후에

7	C&N Global	부동산개발업	100	'21.8월	호치민시
8	Ecopark 공단(LH 공사)	공단	76	'21.8월	흥옌성
9	SI FLEX	전자부품	50	'22.1월	박장성
10	Lotte Mart Quang Ninh	유통	46	'21.5월	꽝닌성
11	Lotte Global Logistics	물류창고	40	'21.9월	동나이성
12	SYNOPEX VIETNAM(증액투자)	전자부품	40	'21.9월	박닌성
13	InTops	전자부품	35	'22.3월	박닌성
14	Patron Vina 2법인	전자부품	30	'21.1월	빈푹성
15	LMS VINA	전자부품	30	'22.2월	하이즈엉
16	PLATEL VINA	전자부품	30	'21.1월	동나이성
17	HANSOL Textile Dong Thap	봉제	30	'21.10월	동탑성
18	LS ELECTRIC VIETNAM	전자부품	25	'21.3월	박닌성
19	KOMELON CORP	기계부품	20	21.4월	하남성
20	Vani Studio Vietnam	정보통신	20	'22.2월	호치민시

자료: 베트남 투자청, 무역관 집계, 2022.3.20. 기준

Ⅲ. 베트남 경제 특징과 정책 동향

1. 베트남 경제 및 시장 특징

□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GVC 재편의 대표 수혜국으로 부상

- 미-중 통상분쟁에 이어 중국 발(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속화된 GVC 재편
 - 기존 중국 중심 글로벌 GVC는 미-중 통상분쟁 및 코로나19 사태를 맞닥뜨리며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 효율보다는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대두
 -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으나, 특정 국가지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탈(脫) 중국 움직임, China+1,2 전략 가속화
 - 글로벌 기업들의 피해와 위기감은 기존의 생산기지 및 원부자재 공급선 다변화 계획에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 리쇼어링 대신 ‘니어쇼어링’, 가깝고 안정적인 베트남으로
 - 생산 제품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기존 생산기지가 본국에서 근접한 곳으로 분산·이전 하는 ‘니어쇼어링’이 증가하는 추세
 - 베트남은 ▲저임금 노동력*, ▲지리적 인접성, ▲정치·경제적 안정성,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바탕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대상지로 우선 검토되고 있음
- * ILO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190달러로, 중국(319달러) 대비 60%에 불과하며 최근 8년간 연평균 증가율 역시 중국보다 낮은 수준

<중국-베트남 최저임금 비교>

(단위 : US\$)

국가	'13	'14	'15	'16	'17	'18	'19	'20	'13-'20년 연평균 증가율
중국	166.0	182.0	201.0	191.0	207.0	216.0	217.0	319.0	9.78%
베트남	112.0	128.0	143.0	160.0	168.0	176.0	181.0	190.0	7.84%

자료: ILO, 중국 및 베트남 통계청

□ 높은 대외개방성을 바탕으로, 아세안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

- 베트남, RCEP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 베트남은 한-베 FTA 포함해 총 15개 FTA 체결 완료, EU 27개국을 포함한 약 52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글로벌 교역 관계에서 참여도 확대
 - 최근 EVFTA('20년 8월 1일 발효), UKVFTA('21년 1월 1일)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인구 및 GDP를 보유한 다자간 무역협정 RCEP('22년 1월 1일) 등을 체결하며 통상저변 포괄적으로 구축 및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 확보
 - * RCEP 발효 후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92%까지 철폐할 예정이며, 반대로 자국 수출품을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85.9%, 기타 국가 수출 시는 89.6%의 관세가 철폐됨

□ 베트남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FDI 기업군

- FDI 기업이 베트남 수출 성장을 견인
 - '21년도 FDI 기업의 수출액은 2,452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2.9% 차지, 베트남 대외교역에 있어서 FDI 기업의 높은 의존도를 방증
 - * 연도별 전체 수출에서 FDI 기업의 비중 추이: (2016년) 70.2% → (2017년) 71.1% → (2018년) 70.5% → (2019년) 68.0% → (2020년) 72.2% → (2021년) 72.9%

□ 1억 인구의 젊은 소비시장, 코로나19 속에서도 꾸준한 소비심리

- 베트남은 약 9,8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5위 거대국가로, ASEAN 회원국 가운데서는 인도네시아(2억 7천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9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
 - 기대수명 상승과 높은 출산율의 영향으로 베트남 인구는 2023년경 1억 명 돌파, 2050년까지 1억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World Bank)
- 소득증가와 중산층 증대로 우수한 소비시장 보유
 - 주요 소비계층인 20~49세까지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중산층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
-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하는 15~34세의 젊은 층이 베트남 내수시장의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
 - 청소년기 및 결혼·육아기 연령층 소비자의 주요 소비품목인 IT 제품, 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이며, 대도시 거주 중산층 가구를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

- * 베트남 중위소득 1가구당 가처분소득은 2016년 837달러에서 2021년 1,352달러로 증가 예상, 중산층 수는 2030년까지 9,5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PwC)
- 도시 유입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증대로 상품 수요의 다양화·고급화와 함께 현대적 유통망이 급속도로 발달, 프랜차이즈 진출도 활성화 추세
 - 최근에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높은 접근성을 겸비한 미니마트와 편의점이 급속히 성장 중
 - 1억에 가까운 인구 성장 및 현지 소비자들의 경제력 제고 덕분에 베트남은 노동 시장의 강점이 우선 부각됐던 과거와 비교해 소매유통 시장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
 - 실제로 일부 지역(특히 호찌민시와 하노이 같은 5대 중앙정부직할시)의 소득수준은 국가 평균 대비 2~3배가량 높음. 다만, 베트남인의 평균 소득수준이 연간 3,000달러 전후이며 베트남의 지역별 소비자의 경제력에 큰 편차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가속화된 디지털전환,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세 눈여겨보아야

-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중 하나로 연간 성장률 35%를 기록, 일본보다 2.5배 높은 성장률을 보임.
 - Lazada, Shopee, Tiki, Sendo는 베트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Big4로 꼽히며 은행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출 증대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도시 (하노이, 호찌민, 다낭)의 오프라인 쇼핑인구 중 20~30%가 온라인 쇼핑인구로 전환(Nielson)
 - * 온라인 배달 서비스 음식주문 플랫폼(Grab Food, Now, Baemin 등)의 배달 음식 주문량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50% 증가, 지속 성장 전망
 - * 식료품 및 생필품 구매는 주로 Grab, Vinmart, Co.op, Chopp 등의 모바일 플랫폼 선호
- 가처분소득 증가 및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비지출 확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지속 성장할 전망
 - '20년 기준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성장한 미화 118억 달러에 달함
 - 2021~2025년 기간 연 평균 25% 성장하고, 2025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iDEA, 베트남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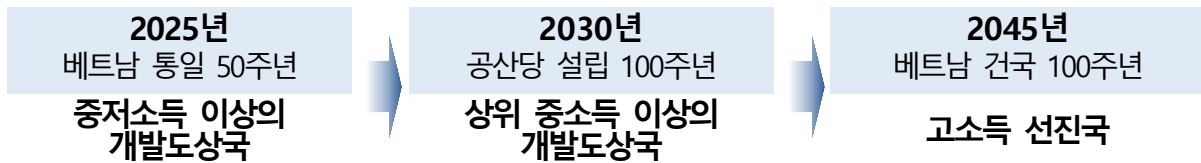
□ 1국 3색의 베트남

- 베트남 북부·중부·남부는 물리적 거리, 역사적 배경, 상이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해 성장 격차가 상당하며, 소비성향과 투자환경 면에서 차이가 뚜렷
- (호치민시) 베트남 경제도시이자 최대 소비시장
 - 의류·섬유, 경공업, 유통, 부동산, 건설 등 다양한 분야 투자 러시, 닌투언성, 빈투언성 등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 등의 프로젝트 진행 중
 - 호치민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주자 소득수준, 쇼핑·외식·여가 지출에 관대한 성향, 새로운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등으로 소비재 진출 시장으로 적합
 - 베트남 시장의 테스트 베드로 주목을 받으며 상당수의 기업, 스타트업이 호치민 시에 전초기지를 구축
- (하노이) 하노이를 중심으로 대기업 및 1, 2차 협력사 중심 투자
 - 소비시장 측면에서 하노이는 거주자들의 소비지출에 인색한 태도, 기존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로 인해 신규 소비재 품목 진출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 다만 과시적 소비성향이 강해 초고가 브랜드 입점이 활발한 편
 - 최근 인프라 개선과 행정개혁에 주력하고 있으며 동남권 유망 투자지로 재조명
 - 삼성, LG 등 국내 전기·전자 대기업의 북부지역 투자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협력업체 상당수가 하이퐁시, 박닌성, 타이응우옌성 등에 진출
- (다낭) 베트남 대표 관광도시에서 동남권 하이테크 경제도시로 도약 추진
 - 2013년 하이테크파크 조성 후 외국인직접투자(FDI) 9건을 포함 총 18개 프로젝트에서 미화 5억 6,400만 달러 유치
 - * 미국의 유니버설알로이(Universal Alloy,UAC)는 보잉, 에어버스 등의 부품 공급 업체로서 다낭 Sunshine Aerospace 공장에서 4천여 종의 항공부품을 생산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로 수출
 - 외국인자본의 고급 리조트 건설과 국제 직항노선 신규 취항이 잇따르면서 베트남은 물론 동남아 지역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고 있음

2. 베트남의 정책 동향

□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설정

- 베트남은 2021년 1월 25일에서 2월 1일까지 개최된 제13차 전당대회에서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와 계획 발표
 -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발표)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 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베 정부는 10년 단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 계획으로서 5년 단위의 목표 제시



- 또한 이를 위해 주요 과제 및 ▲선별적 FDI 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고급 인력 양성, ▲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3대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

<주요 과제 및 목표>

분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업	▶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p>▶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실현, '30년 1인당 GDP 7.5천 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 (3대 전략적 동력) ⁱ⁾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ⁱⁱ⁾고급인재/인력 양성, ⁱⁱⁱ⁾인프라 확충 -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D, 혁신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p>▶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실현 -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 <p>▶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 불 달성,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 -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 - 국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

□ 신규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공포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 베트남 투자법 개정안 '20년 6월 17일 제정, 시행령 (Decree 31.2021/ND-CP) 공포
 - 베트남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 및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투자기업 유치 강화 목적으로 '19년 8월 '2030년까지 해외투자 협력 증진 정책 및 체제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였으며, 투자법 및 시행령에 로드맵을 반영
 - 2014년 제정된 베트남 투자법 No.67/2014/QH13을 대체하여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 발생
 - 투자법 시행령은 2015년 제정된 舊투자법 2015의 세부조항 및 이행지침을 대체하며, 총 9장 132개의 조문으로 구성
 - 투자법 및 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외국 투자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조건부 투자분야 진출, 베트남 정부와의 분쟁,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 인센티브 획득 조건 명확화 등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임

□ 4차 산업혁명시대 동남아시아 IT강국 지향

- 베트남은 2019년부터 「Make in Vietnam」 4차 산업혁명 증진 캠페인을 시행, 2030년까지 첨단기술기업 10만 개사 육성, IT분야 세계 30위 진입, 디지털 경제의 GDP 점유율 30%로 확대 등을 목표로 수립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기업 중심의 발전을 지향할 계획
 -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보안 등

디지털 기술의 응용을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환경 기술 분야의 육성도
중점으로 삼을 전망

- 첨단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및 기초과학 연구 투자에 초점을 둘 계획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노력 가속화**

- '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Đổi Mới, 쇄신)'라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베트남은 서구 국가들과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실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 중
 - 자주적이고 실리적인 외교·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FTA 및 경제공동체 조성에 적극 참여 중
 - 특히, 미국을 제외한 TPP 회원국들의 CPTPP 발효, '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 RCEP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은 유리한 통상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 및 교역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 '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 '10.1. 발효) AKFTA(한국, '07.6. 발효) AJCEP(일본, '8.12. 발효), ACFTA(중국, '05.7. 발효) AHKFTA(홍콩, '19.6. 발효) RCEP('22.1. 발효)	-	-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출범), VJEPA(일본, '09.10. 발효), VCFTA(칠레, '14.1. 발효) VKFTA(한국, '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 '16.10. 발효) CPTPP('19.1. 발효), EVFTA('20.8. 발효)	-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 WTO센터 및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 제조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출입세법 상 면세제도 개선

- 2021년 3월 11일, 베트남 정부는 FDI기업과 베트남 내 대부분의 제조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수출입세법 시행령을 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Decree No.18/2021/NĐ-CP)
 - 수출입세법 개정시행령은 수출가공기업(EPE)에 관한 요건을 명확화하고, 수출 제조기업(SXXK)보다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등 중요한 변화를 포함
 - 내국수출입에 대한 신고절차 및 제재가 명확화되었고,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원재료소요량을 실제 생산소요량(định mức sử dụng)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등 우리 제조기업 대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이 다수 반영
- 베트남 진출기업에 가장 중요한 수출용 원재료 면세제도 요건 구체화
 - 수출가공기업(EPE)의 하드펜스 및 구역확보 요건, CCTV 설치 및 세관 연동 의무화 요건, 수책관리 소프트웨어 구비요건 등을 규정하였고, 개정시행령 발효 이후 1년 이내에 모든 기업이 관할 세관국에 요건 충족여부 확인 필요
 - 수출제조기업(SXXK)이 수출제조를 위하여 수입 및 국내 거래하는 원재료 중 정책상 관세징수권 확보 위험도가 높은 거래형태는 사전납부 후 환급 적용, 임가공계약을 통해 거래 관계를 명확하게 신고하는 임가공기업(GC)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파악

□ PPP법 발효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여건 개선 기대

- 민관합작프로젝트(PPP)법(Law No. 64/2020/QH14)은 2020년 6월 18일 국회 통과, 2021년 1월 1일 발효
 - 기존 시행령(Law No. 63/2018/ND-CP)대비 기반시설 투자 가능 영역 추가, 최소 자기자본 상향조정, 투자 인센티브 및 리스크 분담, 외화 태환 허용 등의 법령 신설
 - 2021년 3월 PPP법 세부조항 및 안내 시행령(Decree No. 35/2021/ND-CP)과 PPP 프로젝트의 재무관리구조 규정 시행령(Decree No. 28/2021/ND-CP) 공표를 통해 세부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용 구체화
 - 경제성장과 함께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베트남 정부의 자원 조달 부담에 따라 PPP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민간자금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할 계획

□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강화, 개정 환경보호법 발표

- 베트남 내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보호법은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전망
 - 프로젝트의 규모, 환경 자원(수자원, 광물자원, 토양자원)의 이용 정도, 환경 민감도와 같은 특정 요소를 기반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프로젝트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환경영향평가(EIA) 목록을 세분화
 - 생산 및 제조시설의 환경보호규정을 구체화하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의무 확대
 - *경제구역·산업단지 내 생산기업의 폐수처리 및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환경 보호 및 관리 인프라 정의, 기업의 산업 폐기물 및 위험물질(오·폐수, 배기가스, 먼지, 기타 위험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

<분류 그룹별 적용 환경영향평가(EIA) 요약>

관리도구	그룹 I (환경 위험 높음)	그룹 II (환경 위험 중간)	그룹 III (환경 위험 경미)	그룹 IV (환경 위험 없음)
예비환경영향평가 (공적투자(ODA) 및 PPP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 환경영향평가 실시)	모두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수행	모두 해당	환경에 끼치는 민감 요인을 검토 후 판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환경허가	폐수, 분진, 배기가스를 발생시키고 환경에 영향을 끼쳐 그룹 I~III 으로 분류된 프로젝트. 배출전 전 처리가 필요한 유해폐기물이 발생하는 프로젝트(ODA 프로젝트 제외)			해당 없음
환경등록	폐기물을 생성하지만 환경 허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젝트. (a) 현장에서 처리 가능하거나 성·시 별 정책에 따라 관리되는 소량의 폐기물을 생산하는 경우 (b) 관련 프로젝트가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경우			

자료: Allen&Gledhill

□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

- 베 정부, 베트남 산업발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현지투자 강화 및 제조산업의 고도화 도모

- 글로벌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이 활성화되고, 제조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발표

<베트남 정부의 부품소재 산업 주요 육성 정책>

정책명	내용
2035년 전망 2025년까지의 국가산업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Decision No. 879/QĐ-TTg ('14년 6월) · (내용) 가공 및 제조 산업, 전자 및 통신 산업, 신재생에너지 부문등을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Decree No. 111/2015/NĐ-CP ('16년 1월) · (내용) 자동차조립, 전기전자부품, 첨단산업 포함 우선 육성 7개 부품소재분야 선정 및 발전지원정책 발표 * ▲법인세, 수입세 등에 인센티브 제공, ▲부품소재산업 시험 생산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 지원, ▲R&D 시설 설립을 위한 토지임대료 인센티브 제공, ▲R&D 장비 구매비용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등
지원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Resolution No. 115/NQ-CP ('20년 8월) · (목표) 2025년까지 자국기업이 국내 수요의 45% 충족 및 전체 산업 부문 생산가치의 약 11% 차지, 2030년까지 다국적기업이나 조립기업에 직접 납품이 가능한 기업 2,000개사 양산 · (내용) 기계공학산업, 섬유 및 의류산업, 가죽 및 신발 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의 지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매커니즘 동기화 노력, 지원산업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

IV. 베트남 경제전망

□ 2022년 베트남 경제, 성공적인 V-자 반등 기대

- '22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5.3~6.8% 전망, 위드코로나(뉴노멀) 시대에 적응하며 성장 모멘텀 확대 및 V자 반등 예상되나 대내외적 불확실성 잔재
 - 내수 소비 진작,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국경개방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경기회복 가능성에 긍정적 평가가 우세
 - *기관별 예측치('22년 4월 기준) : WB 5.3%, IMF 6%, SC 6.7%, Fitch 6.8%, 베 정부 6.0-6.5%
 - 다만, 세계 정치적 불안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 등 대외요인은 수출 의존성이 큰 베트남 경제에 취약하며 수입 발 인플레이션 우려 상존
 - *IMF, 인플레 압박에 '22년 베 경제성장률 당초 6.6%에서 6.0%로 하향 조정('22년 4월)
 - 러-우 사태 여파에 따른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 여건 변화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 회복 속도가 결정될 것
-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 국정 운영의 방향을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공투자 계획 확대에 방점 예정
 - 기획투자부, '22년 공공투자규모 전년 대비 8.3% 상향된 226억 달러로 책정
 - *'22년 공공투자예산은 고속도로, 항구, 디지털 인프라, 5G, 해안도로 건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 촉진, 농촌 개발, 빈곤 감소, 소수민족 개발 등에 중점 투입 예정
- '21년 코로나19 변이 대확산 및 봉쇄조치에도 불구하고, 4분기 빠른 경제 정상화를 통해 연간 경제성장률 2.58% 및 사상 최대 교역액 달성하며 탄탄한 경제적 기반 증명

□ 대외 리스크 관리와 인플레이션 압박 대비 필요

- IMF, '22년 베트남 물가상승률 3.9% 예측하며 인플레이션 대비 필요성 경고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으로 베트남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
-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위험 △중국의 성장 둔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불안정한 부동산 및 회사채시장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요구
 - 경제 회복 및 인플레이션 통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 및 회복에 초점을 두고 유연한 재정·통화정책 시행이 필요

V. 체류 시 참고사항

1. 날씨

- 복장 : 여름용 정장 및 평상복
- 하노이에는 봄, 여름, 가을이 존재하며 연중 고습함. 여름은 고온다습하나, 봄, 가을은 일교차가 커 일몰 후에는 서늘하므로 온도 차를 고려하여 얇은 긴소매 겉옷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2. 입국 시 유의사항('22년 5월 4일 기준)

- '10년 9월부터 입국 신고 간소화로 출입국신고서 및 세관신고서 작성 불요
- 여권 훼손, 분실 시 출입국이 불가하므로 보관에 유의
- '20년 7월 1일 출입국법 개정(Law No.51/2019/QH14)에 따른 변경사항
 -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비자면제 불가 규정 삭제(30일 이내 무비자 재입국 가능)
 - 관광비자(DL) 기존 최대 3개월에서 개정 이후 최대 30일 발급만 가능
 - *관광비자를 90일마다 연장,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노동 허가와 비자 혹은 거주증 없이 근로하는 경우 최대 미화 약 1천 달러의 벌금 및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향후 베트남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베트남 정부는 '22년 3월 15일부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국민에 대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재개(베트남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20년 3월부터 비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교, 공무수행자 및 베트남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한 바 있음)
 - 여권 종류 및 입국목적과 무관하게 적용
 - (시행일자) 2022.3.15.~2025.3.14.
- 베트남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공문 제1265/BYT-DP)에 의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요건 미적용
 - 해외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는 없으나, 입국 후 10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관련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 통지 및 치료 필요

- 베트남 입국 규제에 관한 규정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베트남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베트남 입국정책(비자 발급 필요여부, 입국 요건, 격리유무, 필요서류 등)이 가변적이므로 출장 시행 직전 반드시 확인 필요

3. 환율 및 통화

- 통화 : 베트남 동(VND)
- 환율
 - USD 1 = VND 23,050 ('22.5.4. 베트남 중앙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 KRW 1 = VND 20.58 ('22.5.4. KEB하나은행 현금매도 환율 기준)

4. 대중교통

- 대중교통 : 버스노선 및 배차시간 불명확하므로 택시 이용 편리
- 요금
 - 기본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VND 5,000~12,000까지 상이, 기본요금 이후 킬로미터당 VND 13,000이 부과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상업중심지구(CBD)까지의 평균 택시비는 VND 280,000~350,000(약 1만 3천 원~1만 8천 원)이며, 가까운 시내 주행 시 VND 60,000(약 3천원) 정도 소요

5. Tip 제도

- 베트남에서는 정상 요금에 봉사료가 포함, 팁 지불 불요

6. 시차 및 근무시간

-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 9시는 베트남 7시)
- 근무시간 : 관공서와 은행은 주 5일 근무제(월~금)를 시행(07:30~16:30)
 - *베트남 신한은행과 Techcombank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있음

7. 전압

- 220V / 50Hz (3상 콘센트, 호텔은 한국 2상 콘센트 사용 가능)

8. 전화 거는 방법

- 베트남에서 외국 전화 시 00 먼저 누르고 국가번호 및 전화번호 누름

9. 유의사항

- 소매치기/강도 및 시클로(삼륜 자전거) 주의
 - 최근 외국인 대상 소매치기/강도 등 범죄 증가, 늦은 시간 혼자 배회 자제
 - 최근 시클로 및 세움(오토바이택시)의 경우, 바가지요금 및 범죄 행각 증가
- 보행 시 주의 요망
 - 도로에 신호등, 육교 등이 거의 없어 도로 횡단 시 매우 위험
 - 도로, 호텔 근처에서 호객하는 경우는 장물일 확률이 높으므로 구매 지양
 - 현지인과 사소한 문제로 언쟁할 경우, 집단구타, 흉기 위협이 있을 수 있음
 - 지갑, 여권, 휴대폰, 태블릿 PC 등의 도난 주의
- 음료수 등 음식물 주의
 - 길거리 음식 및 해산물은 간염, 이질 등 위험이 큼. 가능한 끓인 물,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
- 택시 이용 시 주의 요망
 - 가능한 호텔 택시를 이용하시기 바람이며 미터기에 나온 금액보다 더 나왔을 경우 적은 금액은 가급적 포기하는 것이 신변에 안전함
 - 택시기사 중 일부는 분쟁 발생 시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음
 - 택시 이용 시 가급적 Vinasun, MaiLinh, Grab 등 유명 회사 택시 탑승을 권장
- 베트남 유흥업소 출입은 매우 위험
 -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흥업소 호객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베트남 정부는 현지 유흥업소 및 마사지샵 등을 불시 집중 단속하여 성매매 사범 등을 구금 및 강제 추방하고 있음(베트남은 매춘 금지 국가)

VI. 주요 연락처

1. 공관 및 항공/은행/의료시설 비상연락망

KOTRA 하노이무역관(KOTRA Hanoi)

- 주소 :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 Hanoi, Vietnam
- 전화 : (+84)24-3946-0511 / 팩스: (+84)24-3946-0519

한국 대사관(하노이)

- 주소 : SQ4 Diplomatic Complex, Do Nhuan St, Xuan Tao, Bac Tu Liem, Hanoi, Vietnam
- 전화 : (+84)24-3831-5111 / 영사부 (+84)24-3771-0404

한국 총영사관(호치민)

- 주소 : 107 Nguyen Du St., Dist.1 HCMC, Vietnam
- 전화 : (+84)28-3822-5757 / 팩스 : (+84)28-3822-5750

항공사

- 대한항공 : (+84)24-3934-7247
- 아시아나항공 : (+84)24-3771-4094
- 베트남항공 : (+84)24-3832-0320

국내은행

- 신한비나은행 : (+84)24-3724-6814
- 우리은행 : (+84)24-3831-5281-9
- 외환은행 : (+84)24-3771-6800

□ 긴급의료시설

- 빈맥 병원 : Vinmec International Hospital
 - 주소 : 458Minh Khai, Hai Ba Trung, Hanoi
 - 전화 : (+84)24-3974 3556 / 응급실 : (+84)24-3974 4333)

2. 주요 식당

□ 한식

고궁	2F, Keangnam, Phạm Hùng, Từ Liêm	024)3762-4332	일반한식집
목향	1F, Golden Palace, Mỹ Trì, Nam Từ Liêm	090)450-7949	일반한식집
비원	9F, Landmark 72 Tower, Mỹ Trì, Từ Liêm	097)625-3300	일반한식집
아리랑	3F, Grand Plaza Hotel, 117 Trần Duy Hưng	024)3555-1000	일반한식집
고주몽	6F, Lotte Department Store, Ba Đình	024) 3333-2641	일반한식집
	8F, Keangnam, Phạm Hùng, Mỹ Trì, Từ Liêm	024)6282-3038	일반한식집
식객	9F, Landmark 72 Tower, Mỹ Trì, Từ Liêm	076)474-3113	일반한식집
맛찬들	Từ Liêm, CT4 ĐN KĐT Mỹ Đình - Đường	024)3204-5112	일반한식점

□ 중식

대우호텔 Ngan Dinh	360 Kim Mã, Ba Đình	090)216-7698	고급중식
연경	8F, Landmark 72 Tower, Mỹ Trì, Từ Liêm	024)6282-3355	일반중식
자금성	99 Phạm Hùng, Mỹ Trì, Từ Liêm	084)439-4251	일반중식

□ 일식

대우호텔 에도(edo)	360 Kim Mã, Ba Đình	090)344-8098	고급일식
하나유키(영어 x)	15 Đào Tấn, Ba Đình	024)3766-8972	일반일식
제주쉬명	1F, Keangnam, Phạm Hùng, Từ Liêm	024)3377-4888	한국식 일식

□ 베트남식

Quan An Ngon	25T2 Hoang Dao Thuy str , Cau Giay	024)3556-0866	베트남 전통식
Pho Bien	14, Trang Thi str, Hoan Kiem	024)3928-5757	베트남 해산물
Nha Hang Hue	36 Dao Tan str, Ba Dìn	024)3760-6516	베트남 전통식

<참고1> 한-베트남 고위급 외교 일지

- 한-베 수교 : 1992. 12. 22
- 정상급을 포함한 고위급 인사 교류 활발
 - 1993.5월 Vo Van Kiet 총리 방한
 - 1996.11월 김영삼 대통령 방베
 - 1998.12월 김대중 대통령 방베
 - 2001.8월 Tran Duc Luong 국가주석 방한
 - 2002.4월 이한동 총리 방베
 - 2003.9월 Phan Van Khai 총리 방한
 - 2004.10월, 2006.11월 노무현 대통령 방베
 - 2007.11월 Nong Duc Manh 당서기장 방한
 - 2008.3월 Nguyen Phu Trong 국회의장 방한
 - 2008.4월 임채정 국회의장 방베
 - 2008.5월 Truong Tan Sang 당 상임서기 방한
 - 2009.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Korea week)
 - 2009.12월 김형오 국회의장 방베
 - 2010.10월 이명박 대통령 방베(아세안 정상회담)
 - 2011.11월 Truong Tan Sang 국가주석 방한
 - 2013.9월 박근혜 대통령 방베
 - 2014.10월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방한
 - 2014.12월 Nguyen Tan Dung 총리 방한,
한-베 FTA 체결 타결
 - 2015.5월 한-베 FTA 공식 서명
 - 2015.12월 한-베 FTA 공식 발효
 - 2017.4월 정세균 국회의장 방베
 - 2018.3월 문재인 대통령 방베
 - 2018.9월 이낙연 국무총리 방베
 - 2020.10월 박병석 국회의장 방베

<참고2> 하노이 인근 주요 관광지

□ 호치민 묘소(Ho Chi Minh's Mausol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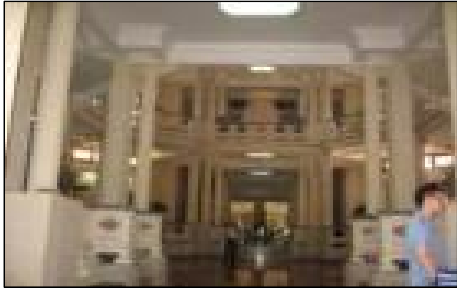
- 호치민 사망(1969년) 후 1975.9.2에 완공된 석재묘소로 건물 내부에 호치민 주석의 시신이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음. 호치민은 생전에 화장을 원했으나 레닌, 스탈린의 예를 좇아 베트남 국민의 단결을 표상하기 위해 묘소 건물로 지어짐
- 묘소 뒤편(500m)에 호치민 생존 당시 거소 및 사무실용 목조건물, 호치민 박물관이 있으며 전면의 바딩(Ba Dinh) 광장(국가 주요행사 장소)을 중심으로 주석궁(President Palace), 공산당사, 국회, 외무부, 외국 공관 등 핵심기관이 위치
- 매일(월·금요일 제외) 08:00~11:00 일반에 공개되며 매년 9~11월 초순 간 연례 보수기간에는 문을 닫음(호치민 시신을 러시아로 옮겨 부패 방지 처리함)
- 베트남 국회와 공산당 본부 건물 건너편 넓은 바딩 광장에 갈색의 대리석으로 된 사각형의 웅장한 건물이 "독립"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과업을 이룩해낸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호치민의 묘소로 아직까지 많은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음

□ 문묘(Van Mieu)



- 11세기에 세워진 베트남 최초의 대학. 특히 그 안에 있는 규문각은 19세기 원조(沅朝)시대에 만든 82개의 비석이 세워짐. 15~18세기 30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행한 과거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새긴 82개의 진사제명비가 서 있음
- 공자 위패를 모시기 위해 1070년에 세워진 이래 1076년부터는 최초의 대학으로서 유교학자를 양성했음. 문묘는 전통 베트남식 건물로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었으며 타원형의 기와로 만든 지붕이 아주 멋있고 벽이 없이 탁 트인 건물과 넓은 경내는 거리의 북적거림과는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한 명소임

□ 역사 박물관(History Museum)



-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의 베트남 역사 유물 소장
- 소재지 : 1, Pham Ngu Lao
- 1945년 이후 유물은 혁명박물관이 별도 소장

□ 전쟁(육군) 박물관(Army Museum)



- 베트남의 전쟁 역사를 보존하는 박물관으로서, 디엔비엔푸 전투, 월남전쟁, 사이공 함락 등 수많은 전쟁 관련 사진 및 자료가 전시되어 있음
- 박물관 뜰에는 소련·중국에서 제공했던 무기가 설치되어 있음

○ 소재지 : Dien Bien Phu 거리

○ 동 박물관 우측에는 베트남 국기대(Flag Tower)인 육각형의 대형탑이 있음

□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Vietnam Museum of Ethnology)



- 베트남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엣족 외에 크메르족, 타이족, 흐몽족 등 53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임.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에 공존하고 있는 소수 민족의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 박물관

○ 1995년 10월 24일 자 총리령에 의해 건립이 추진되어 1997년 10월 24일 정식 개관한 베트남 민족학 박물관은 베트남 사회과학한림원 직속의 국립 박물관으로, 베트남 및 동남아 지역 소수민족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 연구, 보관, 복제하고 이를 자국민 및 외국인에게 소개하고, 교육함으로써 세계의 민족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음

○ 소재지 : Nguyen Van Huyen 거리

□ 하롱베이(Halong Bay)



- 하노이에서 4시간, 140km 떨어진 남동쪽 광림(光林)성의 해안 절경지대 하롱만(Ha Long Bay)은 3천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으로 이루어졌음
- 하롱은 ‘하룡(下龍)’이란 뜻으로, 옛날 외적의 침략을 용이 내려와 쫓아낸 흔적이라는 전설에서 유래
- 1950년 프랑스 아세트출판사는 자연이 만들어낸 조각품인 이 섬들을 세계 8대 불가사의로 꼽음. 90년대 중반 유네스코는 하롱만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

□ 땀꼭(Tam Coc)



- 하노이 남쪽 약 115km 거리에 있는 땀꼭은 ‘숲 속의 하롱베이’라 불림. 하롱베이의 모습을 축소한 것 같은 땀꼭은 수많은 기암괴석이 볼거리를 제공함
- 땀꼭은 ‘세개의 동굴’이라는 뜻으로, 실제 이곳에는 ‘항카’, ‘항하이’, ‘항바라’라는 동굴이 있음
- 동굴투어는 항구에서 나룻배로 이용. 오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베트남 사람의 삶을 엿볼 수 있음

□ 짱안(Trang an)



- 2010년 봄에 베트남 정부에서 빈민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땀꼭과 비슷한 습지 수로관광 코스
- 땀꼭은 수로를 타고 3개의 동굴 탐방이 주류를 이루지만, 장안은 48개의 동굴이 발견되어 그중에 11개의 수로동굴을 관광객에게 개방
- 배를 타고 11개의 수로동굴을 지나는 풍경이 일품

<참고3> 간단한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Xin chào. (썬 짜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Rất vui được gặp ((남) anh/(여) chị)
(젓 부이 드억 갑 (아인/찌))

상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ngài đã cho gặp.
(썬 감 언 응아이 다아 쯔 갑)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ất có ích đối với tôi.
(젓 꼬 익 도이 버이 또이)

또 뵙겠습니다. Chúng ta sẽ gặp lại nhau. (썬 따 쎬에 갑 라이 냐우)

감사합니다. Xin cảm ơn. (썬 감 언)

얼마입니까? bao nhiêu tien?(바우니우 띵?)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 Anh/Chi Ten gì a ?(아잉(남)/찌이(여) 땐 지 아?)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Tên tôi là (Hongkildong). (땐 또이 라(홍길동))

잘 모르겠습니다. Tôi không biết. (또이 크롬 비엣)

실례합니다. Xin lỗi. (썬 로이)

오늘 hom nay (흙 나이), 내일 ngay mai (응아이 마이), 어제 hom qua (흙 과)

[Memo]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